

# 기상청,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선정으로 예산 절감 효과 거둬

- 조달청이 구매하고 기상청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조달청이 시행하는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되어 ‘보호장치 일체형 충격전류보호장치(SPD\*) 내장 분전반’을 올 12월 기상청 서울청사에 설치한다.

\* Surge Protective Device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기술개발 후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제품 중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국가기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사용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초기 판로를 개척하고, 수요기관은 미리 제품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이전에도 해당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재 예방장치(9천만 원)’, 2023년에는 ‘초고속 무정전 전원설계장치(5천1백만 원)’를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까지 총 1억 6천5백만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도입한 혁신제품은 과전압 보호장치와 과전류 차단장치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어,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러운 전력 부하를 방지하여 화재 및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전산 자원 전원 이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산 자원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동연 기상청장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기상청의 예산 절감과 전산 자원 전원 이중화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면서, “앞으로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중소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혁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민현주 (042-481-7240)
		담당자	사무관	이현숙 (042-481-7251)
		담당자	사무관	김상국 (042-481-7260)

